

# 반수생 10만명 전망 ‘역대 최다’ 내신 9등급제 막차에 재도전 러시

올해 9등급제 적용 마지막 입시  
의대정원 확대, 수능 개편 등 겹쳐  
내신 상위권 학생 재도전 나설 것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왔다.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  
지막 입시라는 제도 변화와 의대 정원  
확대, 수능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다. 최  
근 반수생이 9만명대를 유지하는 가운  
데, 2027학년도에는 10만명대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대입 전반의 변동  
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대입은 2008학년도부터  
20년간 적용돼 온 내신 9등급제가 종료  
되는 마지막 입시다. 2일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  
환되면서, 현재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제도 변화 이전에 대입 재도전에 나설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반수생 규모는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수생은 통상  
본수능 N수생 접수자에서 6월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N수생 접수자



를 뺀 인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준에 따  
르면 반수생 규모는 ▲2022학년도 8만  
2006명 ▲2023학년도 8만1116명 ▲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5학년도 9  
만3195명 ▲2026학년도 9만2390명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정  
원 확대 변수까지 겹치며 2011학년도 이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2026학년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  
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

히 전체 N수생 중 반수생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반수생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굳  
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수 증가는 대학 중도탈락 확대에 이  
어지는 모습이다. 2025년 공시 기준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중도탈락자는  
2496명으로 2021년 1624명 대비 크게 늘  
었고, 주요 10개 대학 전체로는 8683명  
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수생 증가 요인은 내신 제도 전환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종로학원은 ▲  
지역의 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모집정원  
확대 ▲2028학년도부터 예고된 수능 체  
계 변화 ▲지난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수능 난이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반수  
생 증가는 상위권 대학과 의약학계열  
을 중심으로 중도탈락 확대와 수시·정  
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험생과 대학 모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교육급여 접수 시작... 저소득층 부담 줄여

교육부, 2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초·중·고 최대 86만원 연 1회 지급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3일부터 20일까지 초·중·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  
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  
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  
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  
원이 이뤄지는 만큼 학기 초인 3월 신청  
이 유리하다.

이번 집중 신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  
교 입학 학생 등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교육급여  
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  
로 한다.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인 권리  
성 급여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 무상교육이 적용되  
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수업  
료·교과서비도 함께 지원한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  
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에 초등  
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연 1회 지급된다. 지  
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  
편결제 등을 활용한 바우처 형태다. 다  
만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  
우처 누리집을 통해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  
거한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으로, 기초  
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다. 고  
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  
비 등이 지원된다. /이현진 기자

## 수원시,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축

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 대응계획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화학사  
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  
한 ‘2026년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2025~2029)’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연차  
별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  
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  
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게 목표다.

수원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  
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관리  
강화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주민  
소통·거버넌스 형성 등 4대 전략을 중시  
으로 15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 2026년에는 11개 세부 사업을 중  
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점검·관리  
▲화학안전 컨설팅 지원 ▲대기방지시  
설 설치·유지관리 지원 ▲화학안전 캠페인  
▲소량 취급 사업장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 운용 등  
이다.

수원시는 관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  
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국  
도를 통한 화학물질 이동량이 많아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다. 불시에 사고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5개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대응  
훈련을 더 강화해 예측하기 어려운 화학  
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시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학사  
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경기) = 김대의 기자 dykimi@

## 학력진단, 맞춤형 학습 한번에... 통합포털 개통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정식 개통  
학생 개별 맞춤 학습자료 제공도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심리검사를  
하나로 묶고 학생별 맞춤 학습과 학습  
이력 관리를 강화한 국가 단위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  
식 개통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  
학년부턴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  
로 기초학력 진단, 심리검사, 맞춤형 학  
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  
폼이다. 국정과제 101번인 ‘교육격차 해  
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의 일환으

로 구축됐으며, 그동안 분산돼 운영되  
던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포털  
로 통합했다.

그간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배·이·스 캠프 ▲국가기초학력지원  
센터 누리집 등 3개 사이트에서 각각 제  
공되던 기초학력진단검사, 보정학습자  
료, 심리검사도구를 이제 한 곳에서 활  
용할 수 있다.

포털은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  
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 개별 수  
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보정학습자료 역시  
기존 pdf 중심에서 전자책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사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검사 결과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학  
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맞춤형 학  
습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학년이나 학  
교급이 달라져도 학습이력이 누적 관리  
돼 학생별 성장 과정도 체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활용 범위도 넓어졌  
다. 학생은 포털 회원가입 후 자신의 진  
단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  
한 학습자료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학부모 역시 포털에 접속해 자녀  
의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심리검사 도  
구와 학습자료를 활용한 가정 내 학습  
지도가 가능해진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폐차 확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시 100만원

서울시는 3일부터 총 338억원을 투입  
하는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접수를 시  
작한다. 올해는 특히 4등급 경유차 지원  
대수를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하고, 녹색

교통지역 거주자가 총중량 3.5톤 미만 4  
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그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던 분리 접수 방식을 개선해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를 통해 신청 편의와 집행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의 실효성을 강화  
하기 위해 지원 요건도 정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대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해야 하며,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공동명의  
포함)에 한해 2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1 | 해질 / 18:27

3월 3일 (화) / 음력 : 1월 15일

수도권 날씨: 2 ~ 1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9, 동두천 1/12, 가평 0/11, 파주 0/11, 서울 2/12, 양평 2/12, 인천 2/11, 수원 3/11, 용인 3/11, 평택 2/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이란 지도자 3명 염두...이란 군부 항복  
할 것”  
▲이스라엘군, 테헤란 제공권 장악 주장... 국영T  
V·병원도 폭격 /사진 뉴시스

▲美 국방부, 3일 대이란 작전 첫 기자회견...장관  
·합참의장 참석  
▲日 “이란 핵무기 개발 용납 못해”...美공습에는  
말 아껴

▲5대 금융, ‘이란 공습에 비상대응...피해기업 금  
융지원  
▲英, 美에 중동기지 사용 승인...佛, 홍해에 군함  
곧 파견